‘로봇 시대, 인간의 일’ 독후 감상문

 32154887 하O기

목록 중에서 가장 흥미롭고 궁금한 책을 선택한 것이 바로 이 책이다. 내가 가질 직업에 대한 것과 생각 정리가 필요해서 이 책을 읽게 되었다. 책의 분야가 인문이라 명시되어 있었지만 기술과학 측면의 지식이 다소 포함되어 있어 완전한 이해를 하지 못 하였지만 이 책을 읽음으로써 내가 가져야 할 생각에 대해 정리하게 되었고 내 가치관이 좀 더 확고히 정립되었다. 우선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내 머릿속에 산산이 부숴지게 되었고 인공 지능이 우리와 얼마나 밀접한가와 얼마만큼 활용도가 높은 지를 알 수 있었다. 현재 40대 이후의 세대들은 축복받은 세대라고 불릴 만큼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는데 성공하였지만 미래에는 대부분이 프리랜서로 지낼 것이라는 글을 본 적이 있다. 이 책을 읽고 나니 나를 포함한 2030세대들이 미래에 대해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고 편협하게 생각해서는 안된다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많은 것을 보고 배우며 한 분야의 지식만을 채우는 공부만을 하다가는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 생각했다. 그리고 인공 지능의 존재 자체가 인류에게 긍정적으로 혹은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양날의 검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면서 윤리적인 측면에 대한 고찰을 다루는 부분도 흥미로웠다.

 최근 자율주행차 사고로 인한 사망 사건과 각국의 전쟁로봇 개발에 대한 영상과 글을 본 적이 있다. 분명 자율주행차가 발전하게 되면 교통 혼잡으로 발생하는 배기 가스를 감축하는 긍정적인 영향과 전쟁로봇이 개발되어 발전하게 되면 인명 피해 없이 평화 체제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은 좋은 점이라 판단된다. 그렇지만 테러를 위한 시스템 해킹이나 전쟁로봇의 경우 군비경쟁이 발생하게 되면 국제 사회에 큰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 생각되며 인공지능 개발에 대한 법규와 규제도 고려해야만 한다고 본다.

책에서 가장 감명 깊게 읽었던 장은 인간의 호기심에 대한 8장이었다. 복학하여 대학교 강의를 들으면서 느낀 거지만 수업 방식이 중고등학교 때와 별반 다를 바 없으며 상호 작용 없이 받아들이는 주입식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우리가 받아야 할 교육인가라는 의구심을 품게 되었다. 물론 지식을 얻는다는 것은 좋지만 다른 장의 내용에서도 나왔듯이 지식을 위한 배움은 대학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배울 수 있다. 대학이 추구해야 할 교육은 지식을 배우는 것을 넘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힘과 소통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한다고 느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최대한 중립적 태도를 지키려 했지만 로봇에 대한 두려움이 커 내가 원했던 것처럼 읽지는 못 하였다. 하지만 독서토론에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다른 이들의 입장을 들어보면 편향된 태도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해 본다.